

“도시학교와 농촌학교의 아름다운 동행”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우수한 환경을 도시 큰 학교가 함께 활용하는 혁신적 시도 ‘도-농 이음교실’

좋은 Gyo6

나·농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편 집 교육과정부

발행인 박용휘

발행일 2024년 10월 1일

'탄소Zero' 실천으로 종이인쇄물을 발간하지 않습니다.



Manarola 연일초등학교 교사 정지혜

SUMMARY | 요약

①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도-농 이음교실

길안초는 전교생 23명의 작은 학교이다. 학교 주변에는 길안천이 흐르고, 조금만 걸어가면 숲이 있고, 학교 담벼락에는 사과밭이 펼쳐져 있다. 길안천에서 골부리 잡기, 파리낚시, 통발 놓기 등 물놀이를 하고, 여름마다 길송분교장에 캠핑을 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 등 도시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로 10차시씩 총 40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여 도시학교인 안동강남초와 만들어가는 도-농 이음교실의 모습을 소개한다.

② 함께 놀며 자라기

물리적으로 멀리 있고 학교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두 학교가 교육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도-농 이음교실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서로 다름이 더욱 풍부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은평초와 예천초가 엮여가는 도-농 이음교실 운영 사례이다. 작은 학교의 잘 가꾸어진 공간과 환경,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함께 하며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놀며 자라기’라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③ 도-농 이음교실만 손꼽아 기다리는 다문 성암 친구들

경산에서도 손꼽히는 작은 학교 다문초와 큰 학교로 손꼽히는 성암초가 만났다. 1학기는 즐거움과 재미, 2학기는 창의력을 주요 테마로 도-농 이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초를 방문하여 보인 성암초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과 다문초 강당과 컴퓨터실에서 e스포츠를 체험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며 즐거움이 넘치는 다문 성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positive Gyo6 freecycle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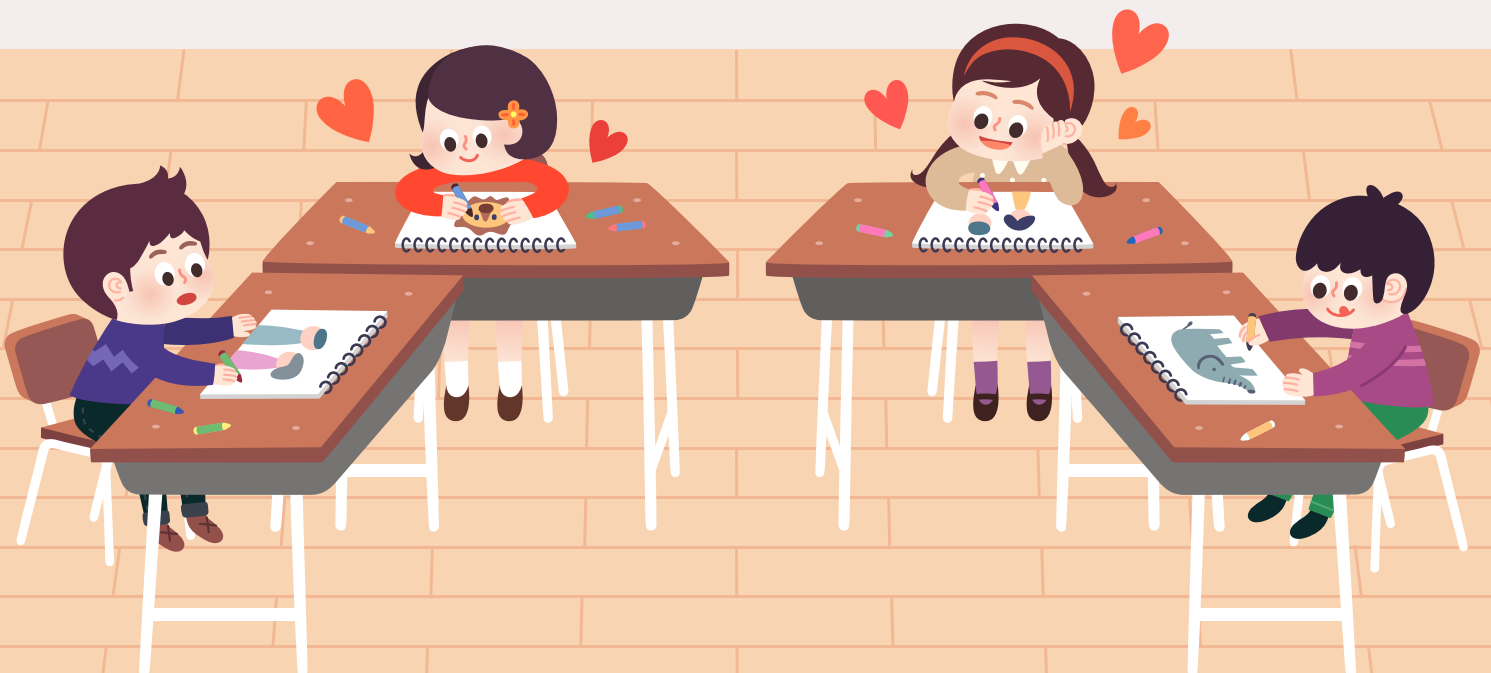
경북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교육 실천 이야기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도-농 이음교실

길안초등학교 교사 김홍철



시 간 표						
	월	화	수	목	금	토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01

도시와 다른 풍경의
시골학교

길안초등학교는 안동 동쪽 끝에 위치한 전교생 23명의 작은 학교이다. 학교 주변엔 길안천이 흐르고 학교 담벼락 옆에는 사과밭이 펼쳐져 있다. 조금만 걸어가면 숲이 있고, 도로를 따라 한참을 더 가면 자그마한 길송분교장이 있다. 말그대로 농촌에 위치한 시골학교이다. 아이들은 1년 내내 학년 구분 없이 어울려 놀고 학교 근처에 있는 길안천에서 골부리 잡기, 파리낚시, 통발 놓기 등 물놀이를 하고, 여름마다 길송분교장으로 캠핑을 가서 고기 구워먹기, 밤하늘의 별 관측 등 농촌학교여서 가능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02

아이들에게 교실이란
어떻게 기억될까?

도시학교에서만 근무했던 나에게 교실이란 학생들로 가득해 늘 좁고 분주했던 공간이었다면 길안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두 세명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수업하던 넓지만 텅빈 공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길안초등학교 학생들은 같은 학년끼리 피구를 해본 적이 없다.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이다. 같은 이유로 하고 싶은 활동은 많지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다 같이 어울려 놀 때는 활기가 넘치던 아이들이 교실만 들어와서 수업을 하면 활기가 줄어든다. 서로에게 궁금한 것도 혹은 이야기할 친구가 없는 것이다. 그게 늘 고민이었다.

03

길안초 도-농
이음교실을 만나다

도-농 이음교실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중 하나이다. 도시의 학생들이 시골 학교의 뛰어난 자연환경 및 유희 공간을 공유하고 시골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자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처음 도-농 이음교실을 신청할 때 망설임 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나 일에 대한 두려움 보단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04

교육과정 속에서
도-농 이음교실을
만들다

도-농 이음교실을 준비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세웠던 원칙은 단편적이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교육과정 속에 도-농 이음교실 활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도시 아이들이 하루 찾아와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활동 속에 배움과 놀이가 함께하고, 학생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그 속에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 학년 교육계획 준비 기간에 협력학교 선생님들과 길안초 교사 모두는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교과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교육과정 속에 어떻게 이음교육 과정을 붙여 넣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자연속에 경험, 탐구, 공유, 나눔이라는 이음교육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과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호기심 Play	도전 actiOn	배움 Party	내일 sUPport
1학년	반려견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길안천 골부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모든 꽃은 차로 만들 수 있을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2학년	봄 알록달록 색깔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길안천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3학년	공원을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단오 축제에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조상들은 어떤 놀이를 즐겼을까?	철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4학년	우리도 농사 일을 할 수 있을까?	학급소풍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우리 텃밭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을까?	이웃과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5학년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낙동강 살림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사과가 가장 맛있을까?	아이들은 왜 안동전통식혜를 싫어할까?
6학년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보리차는 어떻게 만들까?	우리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환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05

자연 속에서 도-농 이음교실을 실천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 10차시씩 총 40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7월 4일(목) 여름 프로그램으로 길안초 1학년 2명의 학생들과 안동강남초 1학년 24명의 학생들은 ‘길안천 골부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도농이음 수업을 운영하였다. 아침부터 길안초등학교로 스쿨버스로 등교한 안동강남초 1학년 학생들은 이번 봄 프로그램으로 이미 얼굴을 익힌 길안초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늘 조용했던 교실은 간만에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잠시의 소란 후 아이들과 함께 사전학습으로 읽어본 그림책 내용을 살펴보고 길안천에 살고 있는 골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학생들과 길안천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포스터와 강물 정화흙공(EDM 흙공)을 만들어 본 후 강으로 이동하여 골부리 종패와 함께 강에 투척하였다. 캠페인 활동 후 아이들과 급식실에서 다함께 점심을 먹고 운동장과 트램펄린장에서 신나게 뛰어 놀았다. 스쿨버스로 하교하는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운동장과 트램펄린장을 온전히 자신들만 사용한데서 무척 기뻐하였다.



EDM 흙공 만들기



골부리 종패 방류



트램펄린장 이용

2024학년도 경북 도-농 이음교실

— 함께 놀며 자라기 —

은풍초등학교 교사 임유미



01

경북 도-농
이음교실이란?

경북 도-농 이음교실은 농산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의 잘 가꾸어진 공간과 다양한 환경을 활용하여 도시의 큰 학교와 함께 하는 공동 교육과정이다. 도-농 이음교실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 여건을 마련해 학년 단위, 학급 단위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고 학교의 경계를 뛰어넘는 상호 협력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지향한다.

구분	역할	내용	기준
작은 학교	[중심] 나눔학교	작은 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는 도(都)-농(農) 이음교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특수학급 제외)
큰 학교	[협력] 같이학교	도(都)-농(農) 이음교실 공동 수업 (팀티칭) 및 교육 활동 참여	학생 수 300명 이상 또는 15학급 이상

02

무엇을 함께 나눌까?

나눔(중심)학교인 은풍초등학교는 예천군 은풍면에 있는 전교생 36명이 함께 배우는 작은 학교로, 주변이 높고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풍경이 다양한 곳이다. 작은 학교 가꾸기와 경북 미래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학습과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년별 6명 내외의 학생 수로 또래의 학생들과 다양하게 어우러져 지낼 기회는 다소 부족했다. 같이(협력)학교인 예천초등학교는 예천읍에 위치한 학교로,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만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두 학교의 다른 환경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은풍초등학교 전교생과 예천초등학교 2학년 1개 학급이 도-농 이음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과제	시기	장소	활동명/내용
같이 놀자 (놀이 수업)	4.25.(목) 09:00~13:00	은풍초	▶ 은풍초 탐방 및 놀이 중심 관계 형성 수업 - 은풍초 방문 및 작은 학교 탐방하기 - 오리엔테이션: 도농 이음교실 운영 계획 안내 - 놀이 수업 및 관계 형성
숲과 함께 놀자 (생태 전환 교육 수업)	3.28.(목) 5.27.(월) 9.23.(월) 11.18.(월) 09:00~13:00	국립산림 치유원	▶ 사계절 숲속 학교 - 숲을 주제로 한 생태전환교육 수업 활동 - 각 학급별 후속 활동 및 프로젝트 수업 - 활동 및 프로젝트 결과 나눔회
노래하며 놀자 (기악 합주 수업)	8.23.(금) 8.30.(금) 9.6.(금) 9.27.(금) 9.30.(월) 11:00~12:20	은풍초	▶ 기악 합주 수업(마을 교사 수업) - 마을 교사 지원 협업 수업 진행 -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악 합주 프로젝트 수업 - 학생 합주 공연: 10.17.(목) 예천초, 11.28.(목) 은풍초 축제 - 공연 관람: 10.2.(수) 안동 탈춤 축제 공연, 10.21.(월)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초청 공연

03

같이 놀자
(놀이 수업)

은풍초등학교가 작은 학교이기에 가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학생 자치활동 모듬인 ‘흔한 남매’이다. 전 학년을 골고루 섞어 6개의 모듬으로 나누고 학생자치회 및 학교행사에 참여하며 전교생이 서로 챙겨주고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1년간 함께할 두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잘 어우러져 지내기를 바라며 예천초 학생들도 3-4명씩 나누어 흔한남매의 구성원이 되게 했다. 놀이 수업 날 교사들은 안전지도 및 놀이활동을 보조하고, 은풍초 고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예천초 학생들에게 은풍초등학교의 역사와 학교의 여러 장소를 설명하고 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놀이 수업을 위해 자치 회의를 열어 활동을 정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준비했던 은풍초 학생들은 무척 뿌듯해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학교의 학생들은 서로 애뜻한 정을 키울 수 있었다.



04

숲과 함께 놀자
(생태 전환 교육 수업)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역량 및 기후·생태 환경 관련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은풍초등학교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국립산림치유원이 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더 나아가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생태 전환 교육의 장이다. 은풍초등학교는 작년부터 이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자기 나무를 심고 1년간 돌보며 계절별 숲체험과 학급별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사계절 숲속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도-농 이음교실 수업으로 봄에는 학생들이 각자 나무를 심고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지어 이름표를 걸어 주었고, 여름에는 나무가 모여 만들어진 숲에 대해 알아보고 그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시를 썼다. 아직 가을, 겨울 활동이 남아 있지만 도-농 이음교실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다 풍성한 교육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05

노래하며 놀자
(마을 교사 연계
기악 합주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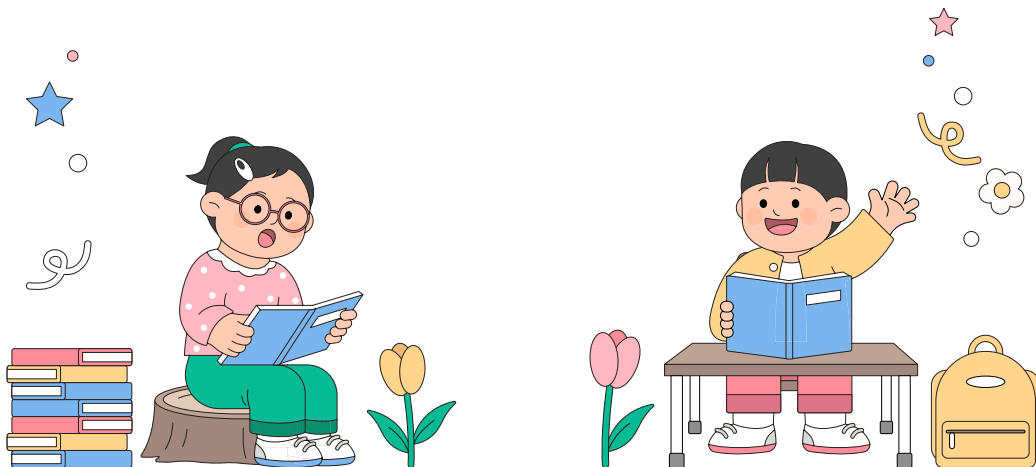
은풍초등학교는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사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은풍초등학교 전교생이 1학기에 5주간 마을 교사와 함께 ‘기악 합주 수업’을 하고 도시문화체험학습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교과서에 수록된 3-4곡을 골라 1,2학년은 리듬악기, 3학년은 실로폰, 5,6학년은 알토리코더로 연주하고 합창 연습도 했다. 버스킹 공연을 위한 연습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간단한 리듬과 선율로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경험을 얻었다. 우리가 겪은 과정과 경험을 예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고 2학기에 있을 두 학교 축제에서 나누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안고 도-농 이음교실 기악 합주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06

진짜 흔한 남매로
거듭나기

물리적으로 멀리 있고 학교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두 학교가 교육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도-농 이음교실 수업을 하면 할수록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서로 다름이 더욱 풍부함이 될 수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해가 바뀌어도 늘 같은 구성원과 함께했던 은풍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친구, 혹은 동생들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수업을 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 사이의 관계가 확장된 것이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어 어색한 남매였지만 이제는 서로 만나면 반갑고 함께해서 즐거운, 말 그대로 흔한 남매가 되어가는 중이다.



도-농 이음교실만 손꼽아 기다리는 다문 성암 친구들

성암초등학교 교사 최지윤

다문초등학교 교사 천상희



01

성암, 작은 학교 다문을 방문하다

처음 도-농 이음교실로 작은 학교인 다문 초등학교와 교류하게 되어 방문한다고 성암초 아이들에게 안내했을 때 “우리 학교가 큰 학교예요? 거긴 몇 명이 다녀요?” 하며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작은 학교를 궁금해했다. 전교생이 1,600여명으로 교실이 꽉 채워져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일상인 성암초 아이들에게 전교생 40여명이 다니는 다문초등학교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다문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면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면 좋을지 ZOOM을 통해 반장과 부회장들이 화상회의를 하며 서로의 처음 얼굴을 접했다. 성암초 학생들은 모니터 속으로 다문초 친구들을 보며 어떤 성격의 친구들 일지, 하루 만에 친해질 수 있을지, 다투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다문초 방문일을 기다렸다.

*첫 번째 방문

첫 방문일에 버스를 타고 30분 이동하며 농촌에 있는 다문초가 도심 속 성암초와 어떤 점이 다를지 한 아름 기대를 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같은 경산인데도 이 지역은 처음 가 보고 동네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는 성암초 학생들이 많았다. 도착하니 다문초등학교를 둘러싼 산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경치가 예쁘고 운동장이 성암초보다 더 넓고 크다며 좋아했다. 다문초는 5~6학년이 합쳐서 15명이어서 한 반에 26명인 성암초 학생들이 학생 수가 정말 적다며 신기해하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학년마다 한 반씩 있어서 학교도 2층까지 있는 점을 인상 깊어했다. 새로운 또래를 만났다는 어색함도 잠시, 만나자마자 인사 및 스트레칭 후 경찰과 도둑으로 몸도 풀고 아이스브레이킹하며 친해졌다. 축구, 피구, 이어달리기, 탁구, 배드민턴 등 각종 운동을 즐기며 스포츠데이 동안 많은 추억과 즐거움을 쌓았다.

서로의 이름도 알아가고 성격도 알아가며 누가 운동을 잘하고 활발한지 와글와글 수다를 떨고 가까워졌다. 다른 학교 급식은 처음 먹어본다며 기대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다문초 급식이 성암초보다 더 맛있다는 반응이었다. 다문초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작은 학교만의 낭만이 있다며 다문초 같은 학교에 다녀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

도-농 이음교실의 연간 교육활동은 일회성에 그치는 외부 프로그램 체험을 지양하고 일상적인 수업을 함께 하며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 ‘함께 놀며 자라기’를 주제로 정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의 환경과 시설뿐 아니라 다른 학교와 나눌 만한 교육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며 세부 활동 계획을 세웠다.



* 두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일인 e스포츠데이 역시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다가 방문하게 되었다. 강당에서 VR기기로 게임도 하고, 컴퓨터실에서 카트라이더랑 로블록스도 하고, 보드게임도 즐기고, 피구도 했다. 국어, 수학 같은 교과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좋다는 평소보다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학생들이 참여했다.

강당에서 VR, 교실에서 보드게임, 컴퓨터실에서 온라인 게임 중 원하는 활동을 직접 계획해서 선택하며 활동에 참여하니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성암초에는 기기가 없어서 해본 적이 없던 VR을 다문초에서 처음 해본 아이들은 생생하게 신기술을 맛볼 수 있었다며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아쉬워할 정도였다. 또, 이미 VR 기술을 접해보고 배운 다문초 학생들이 성암초 아이들에게 직접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마워했다.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고 다양한 e스포츠 체험을 한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도 졸업을 앞두고 좋은 추억을 쌓게 되어 너무 좋다는 반응을 남겨주셨다.



다문초등학교 교사 천상희

02

다문과 성암 서로를 알아가다

다문은 경상에서도 손꼽히는 작은 학교다. 반대로 성암은 손꼽히는 큰 학교다. 선생님들은 어떤 학교가 크고, 어떤 학교가 작은지 잘 알고 있지만 다문초, 성암초 학생들은 도-농 이음교실에 참여하기 전에는 같은 경상 지역이라도 자기 학교 혹은 주변 몇몇 학교 외에는 아는 학교가 없었으니 서로 전교생 숫자만 듣고도 신기해 하였다. 그런데 같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전교생 숫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학교의 문화도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이야? 6년 동안 계속 같은 반이라고? 그러면 반장, 부반장은? 전교 회장은?”

“뭐? 26명이나 된다고? 반도 8개나 돼?! 우와!! 진짜 크다!!!”

“학교 마치면 학원 가? 학원에 뭐 타고 가? 스쿨버스 타고 간다고?! 학교에 스쿨버스도 있어? 진짜 좋겠다. 우리는 그냥 학원 걸어가. 가다가 배고프면 떡볶이 집이나 편의점 가서 맛있는거 사먹고 학원에 갈 때가 많아.”

생각보다 서로 다른 것이 많아서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였다. 그러다보니 이런 요구도 있었다. 1학기 때는 프로그램이 빠듯하게

돌아가다보니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했으니 2학기 때는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성암초 학생 중 몇몇은 다문초 학생들이 훨씬 더 편해보이고 자유로워 보인다고 부러워서 전학가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다문초 학생들 중에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겠다며 서로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농 이음교실의 가장 큰 효과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서로 만날 일도, 함께 이야기할 일도 없었겠지만 도-농 이음교실을 계기로 만나 서로의 세상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서로를 더 이해하는 것! 그것이 도-농 이음교실의 가장 큰 효과인 것 같다.

1학기 도-농 이음교실은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다가 주요 테마였다면 2학기는 서로의 창의력을 뽐내고 나누는 게 주요 테마이다. 10월에 있을 세 번째 만남에서는 창업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서로 만든 제품을 사고파는 경제 활동을 할 예정이고, 12월 마지막 만남에서는 학생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어 서로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뽐내고 공유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2학기 활동으로 즐거운 도-농 이음교실 만남에 더해 서로의 창의력에 자극을 받고 더 넓은 꿈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해 본다.

